



제22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카누팀(왼쪽)과 여자고등부 k-4 500m에서 값진 금메달을 합작한 목포제일여고 카누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광주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 활성화’ 맞손

광주시체육회가 ‘시민이 건강한 행복 광주’ 구현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체육회는 28일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이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로, 공유와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현재 관내 학교 중 강당은 97%(190교 중 185교), 운동장은 98%(235교 중 231교)가 개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등의 교육활동 집하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를 제외한 수치다.

그동안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추진을 위해 관내 초·중·고 개방 현황 파악 및 학교별 요구 사항 해소를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교시설 적극 개방 ▲학교 체육시설 이용 단절 예방 ▲학교 체육시설 교육 지원 ▲학교



전갑수 체육회장(왼쪽)과 이정선 교육감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 단체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이용 단체 대표자에게 시설물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자치구 체육회 및 종목 단체 연계를 통해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단체의 인프라 활용과 협업을 통해 학교와 체육이 상생 발전하고 150만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전남 카누 순항, 전국체전 ‘금빛 물살’ 예약

제22회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 금 7, 은 3, 동 4 수확 전남도청 ‘종합우승’...김소현·임성화·탁수진 ‘3관왕’

전남 카누팀이 제22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도청, 전남도체육회, 전남체육고, 목포제일여고 등 전남 도내 카누팀은 지난 24-26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금 4, 은 1, 동 1개를 수확하며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소현, 임성화, 탁수진은 3관왕에 올랐다.

탁수진이 k-1 200m에서 44초018로 금메달, 임성화와 김소현이 k-2 200m에서 37초835로 금메달, 김소현, 김현희, 임성화, 탁수진이 k-4 200m에서 36초511로 금메달, 김소현, 임성화, 탁수진, 권은희가 k-4 500m에서 1분44초299로 금메달을 따냈다.

임성화와 김소현은 k-2 500m에서도

1분52초376으로 은메달을 추가했고, 김현희는 k-1 500m에서 2분08초230로 동메달을 보냈다.

이병탁 전남도청 카누팀 감독은 “선수들의 탐과 투혼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 기쁘다”며 “다가오는 제114회 전국체전까지 부상 없이 준비해 전남 카누, 나아가 전국체육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전남도체육회 김경민이 c-1 1000m에서 4분06초097로 은메달, c-1 500m에서 1분57초85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등부에서도 전남체육고와 목포제

일여고가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전남체육고 박철웅과 홍정현은 k-2 200m에서 35초836으로 금메달, 박철웅, 이진솔, 이호준, 조유빈이 k-4 200m에서 35초915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철웅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철웅과 홍정현은 k-2 500m에서 1분47초636으로 은메달, 박철웅, 김진솔, 조유빈, 홍정현이 k-4 500m에서 1분48초570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홍정현은 k-1 200m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목포제일여고는 김예원, 김한설, 이예진 이행은이 k-4 500m에서 2분08초45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기자



복기하는 신진서(오른쪽)와 박정환 <한국기원 제공>

신진서, 박정환 꺾고 최고기사결정전 4연패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을 4년 연속 제패했다.

신진서는 지난 27일 열린 제7기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도전 5연기 제3국에서 박정환 9단에 175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종합전적 3승을 거둔 신진서는 쏘팔코사놀 대회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신진서는 “중반 전투 이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때 바뀌기 이후 잘 풀렸다”면서 “우승해서 정말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바둑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박정환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회 결승에 올랐으나 이번이 신진서에게 무릎 꿇었다.

쏘팔코사놀 대회는 본선 리그전에서 1위를 차지한 기사가 전년도 우승자와 도전기를 벌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우승 상금은 7천만원, 준우승 상금은 2천만원이다. /연합뉴스

K리그 최고의 젊은 재능을 가려라!...영플레이어상 주목

광주FC 정호연·엄지성 ‘물망’

프로축구 K리그에서 한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은 누가 받을까.

영플레이어상은 한국 국적의 만 23세 이하이면서 K리그 공식 경기에서 처음 출장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1시즌 이후 데뷔)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즌 소속팀의 경기 절반 이상을 소화해야 후보에 들 수 있다.

2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총 38라운드 중 19라운드까지 치러 전반기가 마무리한 현재 K리그 1에서 25명이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 시즌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던 수비수 황재원(대구)은 올해 다시 수상에 도전한다.

황재원은 5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받고 라운드 베스트11에 두 차례 선정되는 등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미드필더 정호연(광주FC) 역시 19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1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정호연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향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주축으로 지난 15일, 19일 치른 중국과의 친선경기 2연전에서 활약하며 1도움을 올렸다.



정호연



엄지성

데뷔 3년차의 FC서울 수비수 이태석은 올 시즌 19경기에서 나사 1도움을 기록한 이태석은 활동량에서 K리그 전체 5위(55.88km), 최고 속도 전체 4위(시속 34.7km)에 올랐는데, 두 분야 모두 상위 5위 안에 든 유일한 선수다.

지난해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고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11에 든 엄지성(광주FC)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출장해 2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엄지성이 이번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다면 K리그와 K리그2에서 모두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된다.

이호재(포항 스틸러스)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면서도 18경기에서 5득점 1도움을 올려 영플레이어상 후보 중 가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호재는 올 시즌 라운드 최우수 선수(MVP) 1회, 라운드 베스트11에 2회 선정됐다. /연합뉴스



“장애를 넘어 꿈을 펼쳐라”

제5회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30일까지 8개 종목 열전

제5회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30일까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함평, 영암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사진)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는 종목별 전남 선수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로 올해 1-3위 입상 선수들은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보치아, 수영, 육상, e스포츠, 디스크볼, 배드민턴, 슌린, 실내조정 등 8개 종목에서 열린 경기를 펼친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는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뜻 깊은 대회”라며 “장애 학생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이 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내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역대 최다 선수출전을 목표로 내년까지 선수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KIA, 오늘 키움戰 ‘람사르 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단과 환경 분야 국제기구가 함께 펼치는 환경 캠페인으로 올 해로 7회째를 맞은 ‘람사르 데이’는 람사르 협약 제네바 총회에서 습지 인식 증진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람사르 센터는 이날 관객들에게 캠페인 수저세트와 배지 등을 나눠주고, 람사르 협약으로부터 인증 받은 습지 인근 도시인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수단은 습지를 표현한 ‘람사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특히 KIA는 업사이클링 전문 업체 업모스트(UPMOST)와의 협업을 통해 업사이



KIA 타이거즈 ‘람사르 데이’ 기념 유니폼.

클링 소재를 람사르 유니폼에 접목시켰다.

경기 중에는 람사르 협약을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날 교체시 진행되는 퀴즈풀이 이벤트에 당첨된 팬에게는 태블릿 PC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구단 공식 SNS에서도 습지도시를 홍보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가자 5명을 추첨해 람사르 유니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박희중기자

AT마드리드와 맞붙는 ‘팀K리그’ 팬투표로 11명 선발

내달 5일부터 팬투표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국내에서 맞붙는 팀K리그 선수단을 뽑는 팬투표가 오는 5일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내달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팀K리그 선수단 22명 중 11명을 팬투표로, 11명을 코칭스태프 선발로 구성한다고 27

일 발표했다. 팬투표는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K리그 12개 구단이 제출한 각 팀별 11명의 기초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연맹 기술위원회가 포지션별 4배수를 추려 최종 후보에 올린다.

약 열흘간 진행되는 투표에서 다득표 순으로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을 선발한다.

팬투표 결과 발표 후 팀K리그 코칭

스태프와 연맹 기술위원회가 포지션과 각 팀별 차출 인원을 고려해 11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팬투표 후보 명단과 구체적인 투표 방식 및 일정, 팀K리그 코칭스태프 명단은 추후 발표한다.

경기 전날인 28일에는 팀K리그의 오픈트레이닝과 팬사인회 등 각종 부대행사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또 26-27일 북측광장 팬존의 K리그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K리그-AT마드리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부스를 방문한 관객에게 연맹과 쿠팡플레이가 준비한 선물을 제공한다. /연합뉴스